

# 밤길 女의사 흥기 피살

## 광주 용봉동 골목길서... 남편 마중갔다 참변

### 소지품 그대로... 경찰 "원한·면식범 소행인 듯"

광주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여의사가 피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주민센터 인근 앞길에서 광주 모 종합병원 의사 안모(여·43)씨가 흥기에 찢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2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당시 집 발코니에서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안씨 뒤에서 흥기로 목을 찢러 뒤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살해된 장소는 아파트와 원룸이 밀집된 주택가 골목길(도로 폭 10여m)로 용봉동 주민센터에서 150m, 북부경찰서에서는 직선거리로 1km가량 떨어져 있다.

발견 당시 안씨는 흥기에 왼쪽 팔과 목을 두 차례 찢려 숨진 상태였다. 하지만 손지갑과 현금 등 소지품은

### ■사건 현장 약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숨진 안씨는 살해 현장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광주시 모 아파트에서 의사인 남편, 두 딸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날 인근 H교회에 간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당초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녀오려고 했으나 목이 피곤해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씨가 잔인하게 살해된 점으로 미뤄 원한관계 등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가족과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원한 관계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사라진 소지품이 없는 점으로 미뤄 노상 강도에 의한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살해현장이 사람 통행이 잦은 주택가 밀집지역인 점으로 미뤄 범행을 목격한 주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찾는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범인이 안씨의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한 뒤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화면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 부검을 실시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안씨는 예리한 흥기에 목을 찢린 뒤 곧바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인은 건장한 체격의 힘이 센 남성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젯더미’ 미술관 21일 오전 화재로 전소된 보성군 문덕면 백민미술관 2층 전시실(면적 382㎡) 내부 전경. 이날 불로 전시 작품 72점이 소실됐다. 아래는 진화 직후 1층 수장고내 작품을 옮기고 있는 직원들.

21일 오전 화재로 전소된 보성군 문덕면 백민미술관 2층 전시실(면적 382㎡) 내부 전경. 이날 불로 전시 작품 72점이 소실됐다. 아래는 진화 직후 1층 수장고내 작품을 옮기고 있는 직원들.

## 보성 백민미술관 불... 미술품 72점 소실

### 2층 전시실 전소

보성 군립 백민미술관에 불이 나 전시된 미술품이 무더기로 소실됐다. 21일 오전 10시20분께 보성군 문덕면 백민미술관에서 불이 나 2층 전시실(면적 382㎡)을 모두 태우고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2층에 전시돼 있던 작품 72점이 소실됐지만, 1층 수장고에 보관된 의재 하백련 선생의 '홍익인

간'과 양수아 화백 등 작고 작가들의 유명 작품, 제정리사 시대 목판 등의 미술관 대표 작품들은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2층에서 갑자기 불이 나 신고했다"는 미술관 관계자의 말 등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났을 당시 2층 전시실에서는 보성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향수전'이 열리고 있었고, 이 전시 출품

작품이 집중적으로 불에 탔다.

하지만 백민미술관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만 가입돼 있는데다, 주최측인 보성군도 이번 전시와 관련한 보험은 전혀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성군과 출품 작가들 사이에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백민미술관은 1993년 보성 출신 조규일 화백의 작품 기증을 계기로 폐교된 초등학교를 수리해 문을 열었고, 소장품은 500여점에 달한다. /보성=선상근기자 sun@kwangju.co.kr

## 나원침 (7809) 김장두



### 만취 택시기사 5중 추돌사고

20일 밤 11시 20분께 순천시 연향동 오병원 앞 도로에서 조모(26)씨가 몰던 영업용 택시가 신호대기중이던 고모(49)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있던 차량 4대를 연쇄 추돌, 조씨 등 4명이 다쳤다. 조씨는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살인·강도...광주의 밤이 불안하다

### 올 강력사건 7,724건...경찰 수사는 난항

### 가로등·CCTV 설치 요구 등 민원 '붓물'

최근 광주 도심에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거듭, 민생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엔 '가로등과 CCTV 및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살인 6건을 포함한 7천724건(검거 건수 5천893건, 검거율 77.5%)이다. 이들 사건은 예전과 달리 주택가와 상가 등 골목

길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발생한 굵직한 강력사건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지난달 15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남구 구동 김모(39) 형제가 하는 보석공방에 복면을 쓴 3인조 강도가 침입, 흥기로 위협한 뒤 3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북구와 동구 6곳의 동(洞) 주민센터가 잇따라 털렸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 3월 19일 북구 중흥동 H교회 화단에서 일어났던 50대 남성 동기 피살사건도 미궁에 빠졌다.

이단 강력사건 속에 유사범죄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CCTV 및 보안등 설치요구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이날 현재 5개 구청에 제기된 민원은 ▲동구 20건 ▲서구 45건 ▲남구 25건 ▲북구 60건 ▲광산구 34건 등 모두 184건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최근 CCTV 및 보안등 설치요구 민원이 부쩍 늘었다"며 "가로등의 전구 교체는 민원이 제기되면 곧바로 교체해 주고 있으나 설치 문제는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CCTV 경우엔 관할 경찰과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피의자 재갈' 경찰관 2명 고발

### 인권위, 지휘관 3명 징계·직원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구대에 연행된 폭행 피의자에게 재갈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사건과 관련, 전남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 등 지휘관 3명에 경고나 주의 징계를 내릴 것과 재발방지책 마련, 직원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새벽 김모(43)씨는 폭행사건으로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에 연행된 뒤 "수갑을 풀이해주지 않으면 혀를 깨물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 의해 입에 수갑이 물려진 채 의식을 잃은

뒤 11일 만에 숨졌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조사에 착수, 담당 경찰관들의 행위가 통상의 직무수행 범위를 넘어섰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씨의 행위가 자살을 의도했다기보다 수갑을 풀여 달라고 요구하는 수단이었을 개연성이 더 큰 데도 경찰관들이 수갑으로 3분37초 동안 김씨의 입 부위를 찍어누르는 위협성이 내포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경찰은 최모(37)경사 등 경찰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경관조명사업 비리 수사

### 구례문화원 등 압수수색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구례군의 경관조명사업 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포착된 구례문화원과 문화원장의 집, 공사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구례문화원에서 컴퓨터 3~4대, 사과상자 2개 물량의 서류를 압수했으며, 모 야광조명 설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해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문화원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명공사를 맡주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 사이에 금품 수수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빈집서 주인 노릇 물건 팔아 치워



빈집에 들어가 주민노릇을 하며 중고품 매매상을 불러 태연히 물건을 팔아치운 20대 2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21일 밤(22·광주시 북구 풍향동)씨 등 2명을 특수집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정모(여·54)씨의 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뒤 중고품 매매상을 집으로 불러 감치방장고와 벽걸이형 TV 등을 팔아 치우는 등 7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현장에 남은 지문 등을 토대로 이들을 붙잡았는데,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박씨 등은 경찰에서 "유형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상 최고 187만원 지원**  
에너지 최고 83% 절감 냉·난방시스템

구입시 특별할인 혜택!!  
에너지 할부비용으로 할부금들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대우건설과 협력업체가 지원)

대우 빌딩시스템 냉·난방기  
● 에너지 절약에 유리  
● 실내 공기질 개선  
● 소음 낮음  
● 유지보수가 편리  
● 인공조도 절약

대우일렉가성공조시스템 062) 252-2900

대한민국 단 하나의 모방할 수 없는  
특허 기술, 척추 건강을 위한  
외파 선택 - 바우인닥터

바우인닥터는 올바른 척추 보호 뿐만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체형도 바로 잡아줍니다.

하루의 절반은 앉아있는 사람  
바우인닥터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판매처: 남광주사거리 안보기구 바우인닥터  
062) 225-5100  
www.bawoinea.com